



### 어촌·어민 삶의 질 향상 힘 모은다

무안 구로마을·광주도시철도공사·전남어촌특화센터 협약

무안 구로마을,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21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잘 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 어촌과 도시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경태 무안 구로마을 어촌계장,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무안 구로마을은 광주도시철도공사·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약기관과의 교류, 방문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약속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무안 구로마을의 특산물 판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급적 일정량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무안 구로마을에서 휴가, 주말, 연휴 등 비업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 측은 무안 구로마을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역 구내에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전남 어촌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류 및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경태 무안 구로마을 어촌계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로마을에 든든한 친구가 생겼다"며 "이번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성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구로마을에서 생산하는 낙지, 김, 양파 등이 제 가격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공사 차원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논의도 계속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안 구로마을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여수 안포마을과 광주도시공사, 해남 송호마을과 KT&G 전남본부에 이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소개로 3번째로 1사1촌 협약을 맺게 됐다.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은 "도시의 공기기업이나 민간기업과 전남 어촌이 단순히 교류만 늘리는 1차적인 연계가 아닌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연계로 나아가는 것을 센터는 지향하고 있다"며 "면밀한 사전조사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갖고 기업과 어촌의 연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경총, 품질경영시스템 과정 2기 입학식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21일 광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교육생과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품질경영시스템관리과정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이민택·박경숙씨 차남 동준군 (건강보험공단)조영광·이영란씨 차녀 보아양 (건강보험공단)=26일(토) 낮 12시30분 서울 송파구청앞 더컨벤션 교통회관웨딩홀 3층

▲김영권·윤정옥씨 아들 중찬군 김재경(이화자수 대표)·빈정원씨 딸 효진양=27일(일) 오후3시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28 더발렌티 청담

▲유지상·공 란씨 아들 성현군 김관중(농협)·윤현숙씨 딸 보라양=9월2일(토) 오후 1시30분 지평동 JS웨딩컨벤션 3층.

### 동창회

▲재경 정흥 용산중학교 제10회 동창회=26일(토) 오후 6시, 명 대저갈비(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문의 010-2363-0124.

▲북성중 28회 8월 정기 모임=28일(월) 오후 7시 마루동 스키장 010-3379-2209.

### 알림

▲월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충·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모집

▲광주대학교 풍수지리학 연구교좌=양택, 음택, 수택, 나경, 임향론, 비경록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장. 문의 010-3609-8117.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지원, 공영,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심청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교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설천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급 수경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 부음

▲임정실씨 별세 박노련·선희·혜숙씨 모친상 이해선씨 시모상 서종택(고려대학교 교수)이근욱(동화가스 대표)씨 빙모상=발인 2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서계에서 별세 박현철(미호산업)·형자 모친상 이철목씨 빙모상=발인 2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8분향소 062-231-8908.

▲김기순씨 별세 박상호·정아·순천·은아씨 모친상 권명숙씨 시모상 김신호·박태담·최은씨 빙모상=발인 2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b>謹  참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402호 故 심원식 남(남/53세)</b> 子 : 심준희, 상희 未亡人 : 유희경 *발 인 : 8월 22일 *장 지 : 영락공원	<b>103호 故 김용용 남(남/58세)</b> 女 : 김유재 未亡人 : 김정숙 *발 인 : 8월 22일 *장 지 : 화순도곡선영
<b>102호 故 임춘자 님(여/86세)</b> 子/子婦 : 김현숙, 화순삼이/김경자 *발 인 : 8월 22일 *장 지 : 영락공원	
<b>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b> 대표이사 구 제길	
<b>062-227-4000</b> www.mykumho.com	

# “작은 관심이 저소득층 청소년에 큰 도움 주지요”

지난 3월 발족 여학생에 위생용품 지원 ‘하얀나비 희망나눔본부’

“어린 소녀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깔창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사건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을 돕고자 ‘하얀 나비 희망나눔본부’를 조직해 활동중입니다.”

‘하얀 나비 희망나눔본부(이하 하얀 나비)’는 지난 3월 발족한 비영리단체다.

윤영진·봉사자·프리마켓 셀러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하얀 나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차례 나눔 파티 ‘꽃길&동행’을 진행,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기부하고 있다.

하얀 나비의 총단장을 맡고 있는 옥순관은 “지난해 한창 꽃길 같은 아름다움에 간직해왔던 어린 소녀들이 빈곤을 이유로 깔창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에 여러 사람의 관심이 집중될 때 깔창 생리대를 써야만 하는 가엾은 소녀들의 이야기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하고 ‘나눔’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가 될까 고민했다. 또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눔을

‘꽃길&동행’ 프리마켓 열어 기부금 모금해 생필품 기부 한달에 한번 요양원 봉사도 내년엔 법인 설립 나눔 실천

실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그 결과 ‘만나다·출근다·나눔다’는 세 단계의 흐름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고 ‘꽃길&동행’이라는 프리마켓 나눔 파티가 탄생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프리마켓을 즐기면서 소녀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녀들에게 생리대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부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하얀 나비는 나눔행사 외에 한 달에 한번 매월 넷째주 일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매달 ‘꽃길&동행’ 프리마켓을 열어 모금된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기부하는 ‘하얀나비’의 모습. <하얀나비 희망나눔본부 제공>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소녀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양원 봉사활동은 다양한 나눔활동 중 하나예요. 이를 통해 또 다른 사회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옥순관 총단장은 “비영리활동과 영리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내년에는 법인을 설립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



### 광주 MBC ‘5·18발포 명령자 추적’ 등 5·18언론상 수상

광주전남기협, 5·18기념재단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장필수)와 5·18 기념재단은 21일 5·18 기념문화센터 대강홀에서 ‘2017년 5·18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광주 MBC 김인정·김철원·강성우 기자와 최선영 PD(출품작 ‘5·18발포명령자 추적’), 뉴시스 배도민·신대희 기자(37년 만에 증명된 계엄군의 5·18 헬기 사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장경주 PD(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가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또 올해 새롭게 신설된 뉴미디어 부문은 전

남대병원(5·18 10일간의 아전병원)이 상을 받았고, 공모상에는 이상성 전 중앙일보 사진기자가 수상했다.

광주MBC의 ‘5·18발포명령자 추적’은 5·18 당시 미국 관계자들을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해 새로운 관련 자료를 발굴했고, 뉴시스의 ‘37년 만에 증명된 계엄군의 5·18 헬기 사격’ 보도는 지속·심층적으로 헬기 사격 문제를 보도한 점을 높이 샀다. 또 ‘그것이 알고 싶다’의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은 5·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의 인터뷰를 이끌어 내는 등 과거의 사실과 전두환의 회고록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평을 받았다.

/전은재기자 ej6621@

### 신경림·이근배 심훈문학대상

제4회 심훈문학대상 수상자로 신경림·이근배 시인이 선정됐다고 상을 주관하는 계간 시시아가 21일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신경림 시인에 대해 “농민의 애환과 고달픔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정지하게 묘사한 ‘농무’를 시작으로, 인간의 보

편적 고독과 고뇌에 탁월한 시적 감수성으로 천착해오며 한국 시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이근배 시인에 대해서는 “전통과 현대, 한국적 한(恨)과 보편적 감수성, 서정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평생 두 세계의 화해와 통합을 추구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23일 제4회 심훈문학문화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 장호직 삼호의료재단 이사장, 조선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장호직(오른쪽) 삼호의료재단 이사장이 21일 강동원 조선대학교 총장에게 ‘C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발전기금은 조선대가 오는 31일 개최하는 국제평화비전 선포식 및 UN합창단 공연에 쓰인다.

장 이사장은 “평소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었는데 UN합창단 공연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기회가 되는대로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탁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현재 벌교삼성병원,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보성군립노인전문병원, 무등산



성대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전문 병원 경영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호의료재단 이사장, 삼정건설(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교육계 거목 보문학숙 설립자 정형래 이사장 타계

“맑은 예지와 맑은 심성을 지닌 민주 시민상 정립”을 건학 이념으로 한 보문학숙 설립자 보문고등학교 정형래(사진) 이사장이 21일 타계했다.

정형래 이사장은 1974년 광주수문실업전문대학 교수(현 숭원대학교)로 재직하면서 사학 운영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육성에 기여한다는 기치 아래, 1974년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1975년 3월 광산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하여 현재 보문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전통으로 맺어진 교육 결실체를 만들어 냈다.

가흔이자 생활철학인 ‘정직·근검·사랑’을 바탕으로 수많은 보문인(普文人)을 기르기 위한 요람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정 이사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하동정씨 대종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중앙회 부회장과 광주광역시 회장으로서 미래사회를 주도

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열정을 다했다. 이와 함께,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광주향교 전교로서 인간사회 윤리와 사회도덕 확립 그리고 효사상과 인간성 회복에 노력했다.

정 이사장은 사회복지 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정 이사장은 2013년에는 재단법인 보문복지재단에 300여 억 원을 출연, 불우이웃돕기와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 연락처는 062-250-4455 /전은재기자 ej6621@